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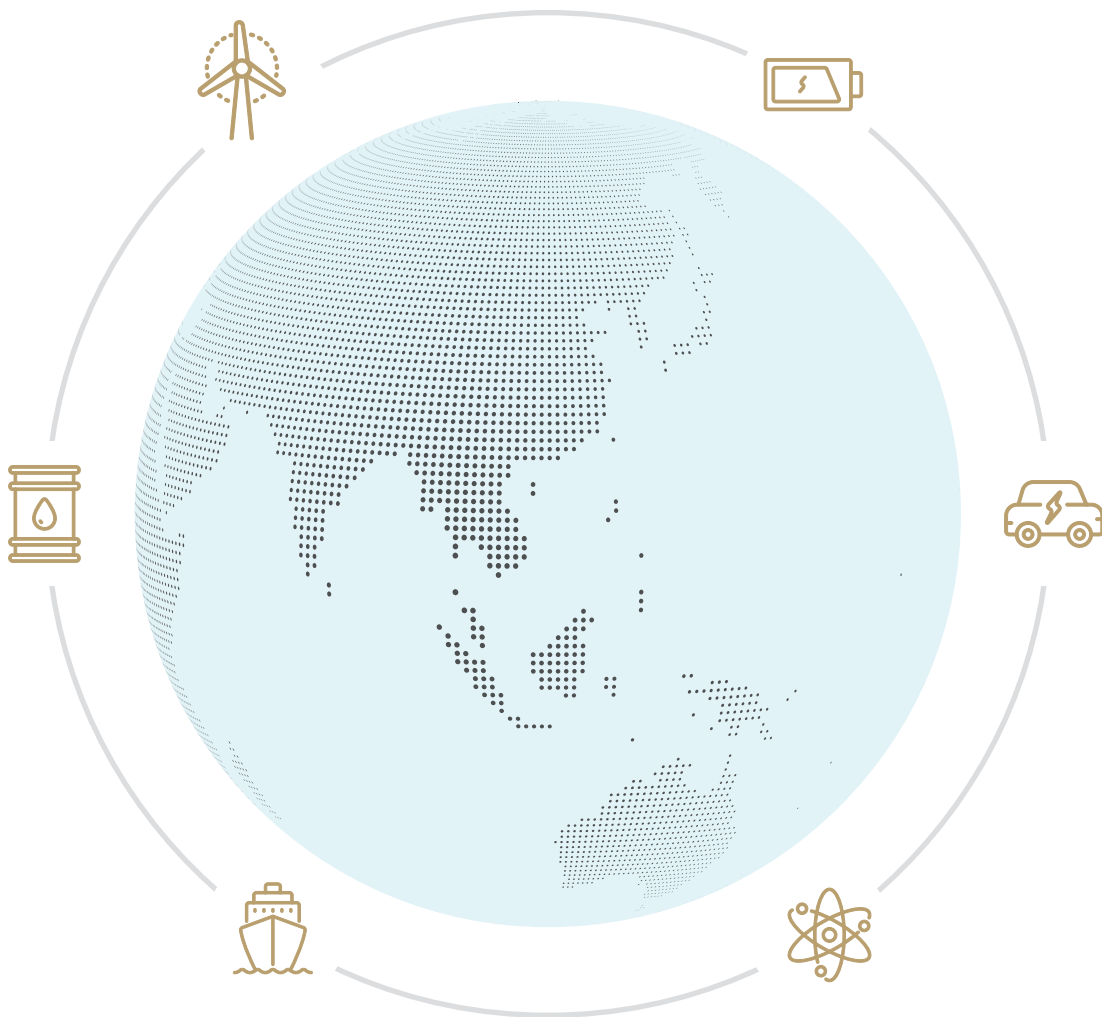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Your Best Investment Partner

ULSAN

THE RISING CITY

세계가 주목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울산



●
세계가 주목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울산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광역시의 다른 이름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대통령 모두말씀)



ULSAN
THE RISING CITY





• Contents

글로벌 성공파트너, 울산	04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06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08
울산의 주력산업	14
신성장 산업	16
투자 입지	24
투자 인센티브	34

글로벌 성공파트너, 울산

국내외 투자현황

2017년에는 149개사 4조 825억원을 투자하였고, 2018년에는 77개사가 5조 59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SK가스(친환경 가스복합발전소), 무림P&P(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SK케미칼(친환경 플라스틱 생산시설)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미래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35개국 169개

외국 기업이 총 9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19년 상반기 기준)

DUPONT, BASF, SOLVAY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울산의 산업인프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부터 전기전자, 기계금속,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을 중심으로 성공신화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계
기업	149개사	77개사	226개사
투자액	4조 825억원	5조 596억원	9조 1,421억원
고용	10,084명	1,727명	11,811명

• 국내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일반현황

연혁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인구



117만명

전국의 2.2% (2019년 6월)

면적



1,061.6 km²

전국의 1.06%, 서울의 1.75배

예산규모



5조 9,495억원

2019년 당초

지역경제

산업구조 (2017년)



수출액



703억 달러
전국 3위(2018년)

항만물동량



2억 286만톤
전국 3위(2018년)

액체화물 처리량



166,594천톤
전국 1위(2018년)

광·제조업 생산액



175조 8,684억원
전국 3위(2017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64,410천원
전국 1위(2017년)

1인당 지역 총소득



50,328천원
전국 1위(2017년)

1인당 개인소득



19,912천원
전국 2위(2017년)

경제적 행복지수



전국 2위
현대경제연구원(2017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산업단지

30개 88.5 km²



국가산업단지

2개 74.3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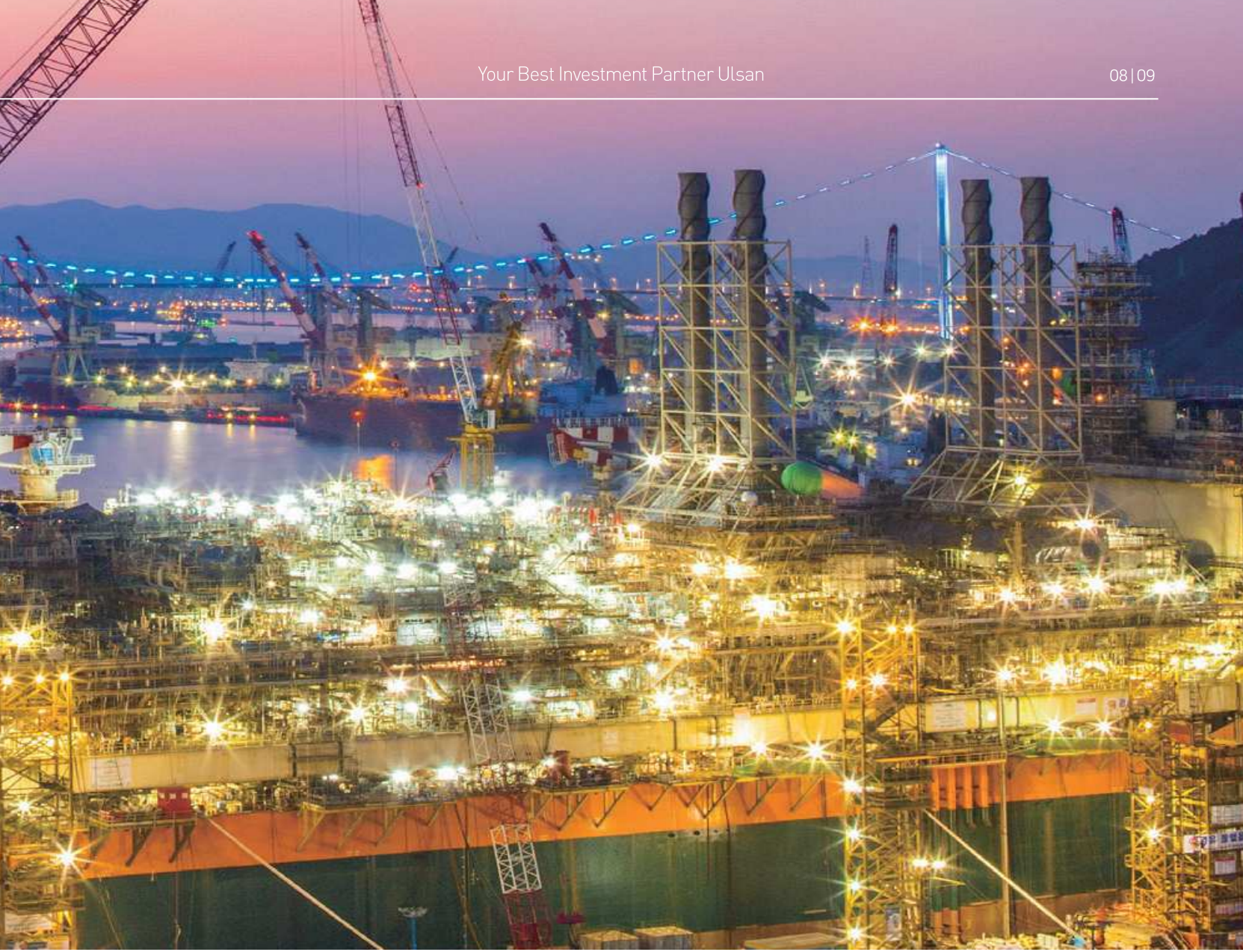
일반산업단지

24개 13.6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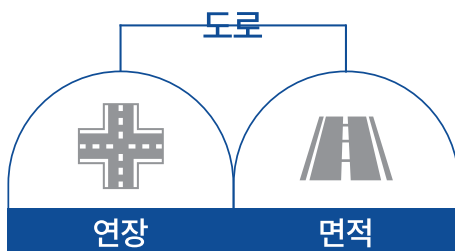


농공단지

4개 0.6 km²



기반시설



3,374 km **48.77** km²
 도로율 20.6%, 포장률 97.22% (2018년)



468,402 호
 보급률 109.3% (2017년)



350 천m³/1일
 보급률 98.3% (2018년)



714 천m³/1일
 보급률 99.0% (2017년)

최적의 교통·물류 인프라



도로

- 경부고속도로 (울산-서울) 4시간 30분
- 울산포항고속도로 (울산-포항) 30분
-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해운대) 40분
-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함양/건설중) 1시간 30분



항공

- 울산공항 (울산-서울, 제주) 1시간 내외
- 동북아시아 주요도시 2시간 이내
- 김해국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국제 주요도시 운항



철도

- 고속철도 KTX, SRT (울산-서울) 2시간 대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울산-경주-포항/건설중) 1시간 대
- 산업철도 국가산업단지 내 제품 수송



항만

- 울산항
접안능력 116척,
연간 하역능력 77백만톤



산업유틸리티

에너지 중심도시 울산은 복합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총 517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울산 및 인근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용 도시가스, 상·하수 공급 및 처리시설, 스팀 하이웨이 등 산업 생산에 최적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물류이송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률



전국 **1** 위
(2018년)

전력

제조업 시설 전력 공급량



전국 **4** 위
(2018년)

스팀 하이웨이 구축

고압 스팀 배관 6.2km 설치(시간당 최대 100톤),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 추진

기업체 간 원료, 완제품, 부산물, 에너지, 물류 연결을 통한 생산효율성
향상 및 산업안전 강화

우수한 인적자원

시민 평균연령 40.2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인 울산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를 비롯한 인근지역 50여개 대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



평균 **40.2**세
전국 2위 (2019년)

울산 인근 대학



54개교
졸업생수 : 8만3천명 (2018년)

풍부한 숙련공



제조업 **7,227**개사
177,427명 (2017년)

최고의 R&D 환경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초소재,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한 500여개 기업 부설 연구소, 공공 연구기관(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산-학-연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최고의 R&D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 연구기관



울산의 주력산업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 육성

한국 최대 산업클러스터이자 아시아 4대 생산 거점인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ICT와의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 지능형 미래차, ICT융합 스마트선박, 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

자동차산업 현황 (2017년)



생산액	부가가치
38조 8,974억원	10조 1,962억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282개	52,452명

조선산업 현황 (2017년)



생산액	부가가치
14조 8,517억원	4조 9,688억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330개	41,695명

석유화학산업 현황 (2017년)



생산액	부가가치
91조 1,587억원	18조 5,663억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258개	25,705명

• 신성장 산업

‘7가지 성장다리(7 BRIDGES)’ 전략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고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7가지 성장다리 (7 BRIDGES)’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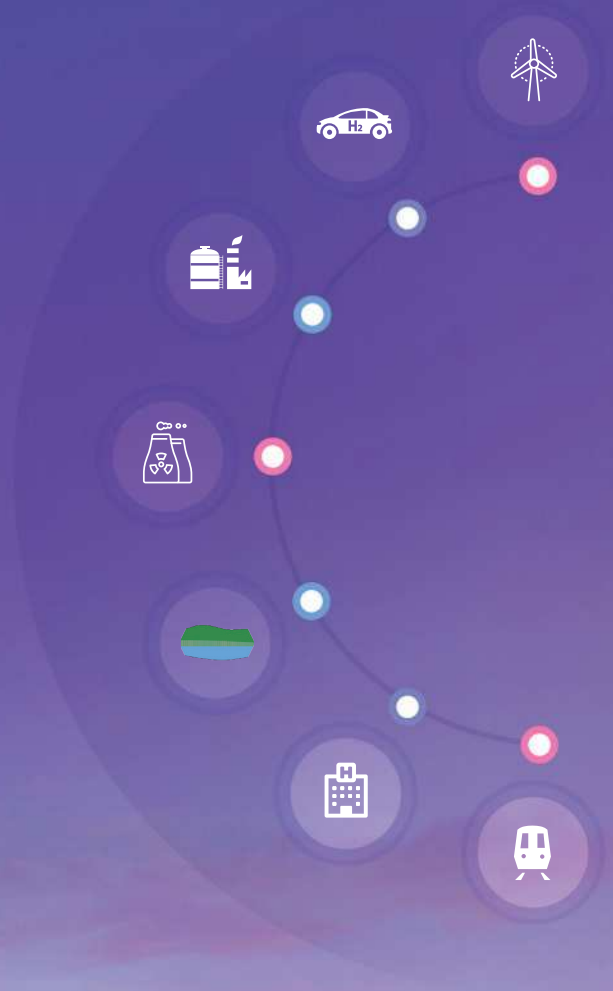
- 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 2. 수소경제
- 3.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 4. 원전해체산업
- 5. 백리대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 6. 울산 첫 국립병원(산재전문 공공병원)
- 7.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3D프린팅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관광 산업

전시컨벤션 산업



7 BRIDGES

친환경 신산업 도시로 가는 4대 에너지 BRIDGES

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동해 앞바다의 깊은 수심과 연중 풍부한 바람자원 등 최적의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1GW급 국내 최대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및 풍력발전기 제작수요 창출을 위한 '발전단지 조성'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울산을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기술개발·제작생산·운영지원·인력양성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발맞추어,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도시로 거듭나고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 해나갈 것입니다.

-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 포럼 2019」 개최('19. 10.)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35,000명, 전력 공급 96만 가구, CO₂ 절감 연간 233만톤



2. 수소경제

국내 수소생산량의 50%(연 82만톤)를 차지하는 수소생산기지로서,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를 양산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건립하여 수소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기반 구축, 6.7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 60기 설치, 수소 배관망 200km구축, 수소 전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 세계최고 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대통령 발표('19. 1.)
- '2030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선포('19. 2.)
-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 전국 1위
 - 수소전기차 1,000대, 수소충전소 5개소('19. 7. 기준)
 - 전국 최초 수소 시내버스 노선 투입('18. 10.)
- 수소배관 인프라 구축 : 120km(전국의 60%)
- 세계 최대 규모 수소타운 조성·운영('12. 8.~'18. 4.)
-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수소 특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3.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2026년까지 세계 4대 액체물류항인 울산항에 684천㎡ 부지, 2,413만 배럴 규모의 오일 및 LNG 저장시설을 구축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에너지물류·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에너지 분야 핵심프로젝트입니다.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가 조성되면 석유 및 액화 가스 연관 산업의 발전(정유회사, 트레이더, 탱크터미널 등), 석유·천연가스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북아 에너지거래 시장(러산(RUS-SAN) 마켓*)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산마켓: 동북아 원유·가스 비축기지로 울산을 활용, 러시아산 에너지원의 국제기준가격 책정

- 남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KDI, '17. 6.)
- 북항 하부공사 완료('17. 7.)
- 「국제에너지 트레이딩 컨퍼런스」 개최('19. 12.)



4. 원전해체산업

원전해체연구소를 건립하여 원전해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전해체 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연계로 원전해체산업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국내 원전해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하여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원전해체연구소 울산·부산 공동유치 확정('19. 4.)
- 원전해체연구소 건립('19.~'23.)
- 원전해체 공정
- 기대효과 : '30년까지 123조원 원전해체시장 선점, 일자리 창출 2,600명

설계 및 인허가

제염

해체

폐기물처리

부지복원

